

칸·베를린 화제작품 만나다

광주극장이 2월 칸영화제와 베를린국제영화제 수상작 등 눈 여겨 볼 작품을 스크린에 올린다. 상영작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영화와 여성 저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스텔러 등 총 7개로 구성됐다.

먼저 8일 개봉하는 '다음 소희'는 전북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영화로 여고생 소희가 겪게되는 사건들, 그리고 이에 의문을 품은 형사 유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정주리 감독과 배우 김시은, 배두나가 함께하며 제75회 칸 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됐다. 제26회 판타지아 영화제에서는 폐막작 선정과 함께 감독상과 관객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같은 날 개봉하는 '성스러운 거미'는 제75회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에 빛나는 작품이다. 이란 최대의 종교도시 마슈하드에서 16명의 여성을 살해하며 자신의 범죄를 언론에 직접 제보한 이란 연쇄살인마 일명 '거미'를 끝까지 추적하는 여성 저널리스트 이야기를 다룬다. 작품은 이란 최초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수상했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발표한 '2022 최고의 영화 50선'에 이름을 올렸다.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초점을 받은 '안녕, 소중한 사람'은 로맨스물이다. 오랜시간 함께 해

광주극장 2월 상영작
배두나 주연 '다음 소희'
'성스러운 거미' 등 7편
관객 50명에 포스터 증정

은 커플 엘렌과 마티유지만 엘렌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두 사람의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 그러던 중 엘렌은 자신과 같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미스터라는 남자의 블로그를 발견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연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혼자만의 여행을 결심한다. 주연 비키크립스는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프랑스와 오종의 작품 '피터 본 칸트'도 15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어시스턴트 칼과 함께 살고 있는 유명 영화감독 피터 본 칸트는 여배우 시도니의 소개로 청년 아미르를 알게 된다. 아미르에게 이끌린 피터는 영화계의 스타로 키워주겠다고 말하며 사랑을 고백한다. 그렇게 둘은 동거를 시작하지만 두 사람 역시 균열을 피하지 못한 다. 제7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개막작이자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페트라 폰 칸트의 쓰디쓴 눈물'을 오마주한 작품이다.

현재 상영중인 작품들도 있다. 먼저 '애프터 썬'은 살롯 웰스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영화로 154개 부문 후보에 올라 5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어른이 된 소피가 아빠 켈럼과 함께 20년 전 향했던 튀르키예 여행을 담은 캠코더를 꺼내면서 펼쳐지는 내용으로 소피의 시점에서 켈럼을 바라보는 구성이다. 이동진 평론가는 이 영화에 대해 만점을 붙이며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독창적인 대답들"이라고 평했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니 에르노가 1991년 발표한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 '단순한 열정'은 한 여자의 거부할 수 없는 육체적 욕망과 탐닉에 관한 이야기다.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자 대학 교수인 엘렌이 한 남자를 기다리며 행복과 불안을 넘나드는 시간, 이별을 받아들이기까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

1996년 개봉 이후 디지털리마스터링 돼 27년 만에 국내에서 처음 선보여지는 '이마베프'도 지난 1일 개봉했다. 프랑스 영화감독 르네 비달이 홍콩의 여배우 장만옥을 펠라피어 집단 우두머리 이마베프 역으로 캐스팅하며 벌어지는 일들로, 올리비에 아사야스와 장만옥의 케미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광주극장은 8일부터 영화 '애프터 썬'과 '이마베프', '단순한 열정'을 관람하는 이들 중 선착순 50명에게 포스터를 증정한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불멸의 시간, 포말처럼 흩어진 기억

‘그날마저 나간 집으로 갔다’
고선주 시인 네번째 시집 발간

“삶이 물 먹은 솜뭉치처럼 제 무게에 가라앉던 날 꽃과 약속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밥알의 힘을 망각한 채 오후가 가지런한 이유마저 몽롱해졌다. 노트북 자판 앞, 언어들이 심란하다. 긴 꿈에서 막 깨어났다.”

고선주 시인(광주일보 문화부장)이 네 번째 시집 ‘그날마저 나간 집으로 갔다’(겉는사람·사진)을 펴냈다.

이번 시집에는 “불면의 시간들, 포말처럼 흩어져 가는 기억들, 뜨겁거나 차갑거나 아무렇게 놓인 일상들”이라는 시인의 말대로 그동안의 ‘불면의 시간’과 ‘흩어져가는 기억’, ‘아무렇게나 놓인 일상’ 등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이 작품들은 ‘꿈’이라는 시어로 수렴되는 것 같다. ‘긴 꿈에서 이제 깨어났다’는 것은 오랫동안 꿈속에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삼는 문인들의 숙명이었 을 테다. 특히 일간지 기자로 날마다 글을 써야 하는 고 시인으로서 자신이 쓰고 싶은 글과 써내야 하는 글 사이에서 아득한 꿈을 꾸지 않았을 까 싶 다.

그 꿈속에서 꾸는 ‘꿈’과 현실에서 꾸는 ‘꿈’의 경계는 아니나 다를까 모호하다. 삶으로 치환되기 어려운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상은 기실 대부분 ‘밤벌이’에 매몰된 이들의 모습일 게다. “한파를 점점 덮아 가는 날들/ 봄날이 한발씩 멀 어지는 중년/ 누우면 다 집인 줄 알았으나/얕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다/ 식어버린 밥처럼 식감이 없는/ 오후의 시간/ 적당히 실패한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를 밀며 / 내일의 나를 향하지만 / 실상 그 자리 그대로 인 삶// 살아지지 않는 집에는/ 언제부터인가/ 살아지지 않는 삶이 거 거하고 있다...

위 시 ‘집으로 가는 중’은 현대인의 삶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중년의 화자에게 매일매일 돌아가야 할 집은 ‘빈 집’, ‘빈 꿈’으로 연계된다. 그러나 ‘비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추 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담보한다.

이병국 시인은 “일반적으로 휴식의 공간이자 재 충전의 사적 장소인 집은 상징적 질서를 내면화한 상상적 공간일 뿐 실상에선 존재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면서도 “시적 수행이 이루어질 삶의 향 방을 따르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일이야 말로 부재한 집의 부정성으로부터 삶을 지켜낼 하 나의 가능성이 아닐까”라고 평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 는” 그런 집을 향해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은 터벅 터벅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여정 위에서 우리는 모두 아득한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른다.

한편 고 시인은 전북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 했으며 시집 ‘꽃과 약속하는 법’, ‘밥알의 힘’, ‘오후가 가지런한 이유’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BTS’ 잇는 ‘TXT’

‘이름의 장: 템테이션’ 빌보드 200 1위...K팝 그룹 5번째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사진)가 다섯 번째 미니앨범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 TATION)’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 보드 200’ 1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5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이들이 데뷔 한 지 3년 11개월 만이다. 이에 따르면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는 미국에서 16만1500장에 상당한 음 반 판매고를 올렸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 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 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 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 량 순위를 산정한다.

‘빌보드 200’ 1위를 밟은 한국 가수는 방탄소년 단(BTS·2018년), 슈퍼엠(2019년), 스트레이 키 즈(2022년), 블랙핑크(2022년)에 이어 투모로우 바이투게더가 다섯 번째다.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소속사 빅히트뮤직(하이브)은 빌보 드 메인 차트에 두 팀 이상의 가수를 1위에 올려놓



은 유일한 국내 가요 기획사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름의 장 : 템테이션’은 마치 피터팬처럼 소 년으로 남고자 하는 유혹에 맞선 청춘의 이야기를 풀어낸 앨범이다. 타이틀곡 ‘슈거 러시 라이드’(Sugar Rush Ride)를 비롯 다섯 곡이 담겼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이번 음반은 선주문량이 200만장을 넘기고, 첫 주 판매량 역시 200만장을 넘기는 등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ACC 공연 레지던시 참여 예술가 모집

다음달 3일까지 창작 2팀·대본 작가 2팀 선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공연 분야 레지던시에 참여할 예술인을 모집한다.

ACC는 스토리 공모전 당선작 또는 도시문 화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에선 공연분야 창작 자 2팀과 아이디어를 대본으로 발전시킬 작가

2팀 등 모두 4팀을 선발한다.

창의성과 동시대적 담론을 작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예술가라면 지원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3월 3일까지이며 ACC 누리집 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온

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4월 중 누리집에 발표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입주기간 작업공간과 숙소, 6개월 간 팀당 매달 200만원의 창작활동비와 작품별 1500만원의 프로젝트 제작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ACC 무대기술 장비와 개별 전문가 상담 및 지도, 광주 지역 탐방, 예술인 교류 행사 등에도 참여하며 결과물은 오는 11월 ACC 예술극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